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써의 치유

염기석(목사, 충북 충주 동락교회)

목회를 시작한지 8년째 되던 해, 1996년 5월말에 당시 시무하고 있던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하였다. 일종의 치유집회의 성격을 가진 집회였다. 은혜롭게 집회는 잘 끝났다. 집회 후에 교인들은 은혜가 모자랐는지, 아니면 아쉬웠는지, 철야를 하며 기도하다 나에게 안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그 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 나의 목회 성향을 아는 교인들은 치유와 은사에 관심이 없는 나에게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치유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이 임했다고 좋아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매우 당혹했다. 왜냐하면 흔히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그런 능력들은 특별한 은사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황당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성령 체험을 했고 신비한 체험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했었다. 그러나 일반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비이성적인 체험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지속하지 않았다. 사실 별 관

심이 없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목회를 시작한 후에도 체험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인 성숙을 위한 체험이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체험은 아니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약 6개월 동안 매일 밤낮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자체 집회를 했었다. 교인들 중 거의 대부분이 고침을 받았다. 치유 사역을 계속하면서도 '이게 뭐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관련 서적을 읽어보기도 하고 치유 사역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기'(氣)나 '단'(丹)을 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책도 읽어보았으나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해 공부해 보고자 다음 해에 목회지를 한적한 시골로 옮기고 지금에 이르렀다.

기독교의 신학적 주제들 가운데 치유만큼 그 평가의 폭이 큰 것도 드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적극적인 찬성은 물론 그 세계로 몰입하는 신비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반면, 어떤 이들은 치유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조차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치유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치유와 같은 기적을 성서 시대에만 국한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다.

치유를 어렵게 또는 당혹하게 여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대적 사고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 이론으로 정립되려면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증거가 되어야 한다. 즉,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치유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면 흔히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병 고침이 이루어지는가? 또 어느 정도의 기도를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 믿음과 기도의 양을 객관화, 계량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치유를 인정하기가 힘들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구는 병이 낫고, 또 누구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질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 받았는데

재발하는가 하는 점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어떤 이들은 치유를 부정하기도 하고 의심을 갖거나 좌절하고 치유를 포기하기도 한다.

사실 위의 질문들과 그에 따른 당혹감은 치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치유를 ‘병 낫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대체의학인양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치유와 병 낫는 것과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 만약에 치유를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울은 안질이라고 전해지는 지병이 있었다. 바울은 병 낫기를 위해 3번 기도했다고 한다(고후 12:7-8). 그러나 낫지 않았다. 그렇다면 바울은 치유 받지 못한 것인가? 바울이 치유 받지 못한 것을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이 부족해서, 믿고 매달리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뜻이 아니므로 등등의 궁색한 말로 설명할 것인가? 아니다. 이는 치유를 단순히 병 낫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오해 속에서 여전히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에 매달리는가? 그것은 치유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초대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후 처음 3세기까지 치유와 이적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러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Constantine) 황제에 의해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어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면서 점차 치유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인정받고 난 후에는 치유를 비롯한 이적의 역사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여 적어도 5세기 이후에는 주류에서 벗어나 비주류의 역사로 전락하게 된다. 중세 교회는 은사에 의한 초자연적이 치유보다는 치유를 조직화, 제도화, 성례전화 하였으므로 초대교회와 같은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종교개혁시대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일변한다. 초대교회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이다. 치유의 물결은 서로 다른

두 줄기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카리스마에 의한 은사적 차원의 치유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목회 상담을 통한 치유이다. 여기서는 은사 치유의 차원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중요한 카리스마를 통한 치유 사역의 운동을 볼 때 사회적 관심을 끈 최초의 은사 운동은 아마도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어빙주의자(the Irvingite)들일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크리스천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 등이 있는데 본격적인 치유 사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개된다. 그 흐름을 주도한 것은 오순절 운동, 은사갱신 운동, 그리고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빈야드 운동 등이다.

현대 오순절 운동은 1906년 캘리포니아주 L. A. 아주사거리에서 열렸던 부흥 집회로부터 시작되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들은 특히 방언을 중시하며, 치유와 예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교세를 확장시켰다. 열광적인 이들의 분위기에 기성교단들은 끊임없이 이단 시비를 제기하다가 결국 1943년에 가서 교단으로 인정하게 된다. 둘째로 1960년, 성 마가 성공회 교회 신부인 데이빗 바렛(David Barrett)으로부터 시작된 은사갱신운동은 신오순절주의로도 불리는데 주로 가톨릭과 성공회를 중심으로 활약하게 되는데, 이들이 오순절주의와 구별되는 것은 이들은 자신의 교단 내에서 활동을 한다는 점과 주로 중산층들이 이들의 지지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이들 역시 치유를 전면에 내세운다.

셋째로 와그너(C. Peter Wagner) 교수가 이름 붙인 '제3의 물결 운동'(the Third Wave)이다. 이 운동은 교파 운동이 아니며, 어떤 국제적인 조직이나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닌 초교파주의 운동이다. 와그너는 복음주의자이면서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으나 오순절주의나 은사갱신운동과 구별되고, 정통복음주의 교회 방식과 다른 자신들의 운동을 '제3의 물결'이라고 명명했다. 포도원교회(Vineyard Christian Fellowship)를 세우고 찬양과 치유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존 워버(John Wimber)가 중심 인물이다. 요즘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에어포트 빈야드교회가 은사주의 축복 운동의 중심지로 각광 받고 있다. 빈야드 교회의 특징은 찬양, 치유, 은사 추구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 토론토 축복이라고 하는 집회에서는 쓰러지는 현상(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입신), 억제할 수 없이 웃는 현상(거룩한 웃음), 토론토 경련으로 불리는 진동, 통곡하는 현상, 술 취한 현상, 흔들고 뛰는 발작 현상 등 기성 교단에서 용납하기 힘든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이단 시비가 있다.

오늘날 치유에 관련된 대부분의 서적들이 이들에 의해 저술되고 있는데 그들의 저서들을 보면 대부분이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간증의 글들이며, 소수의 책들은 치유 현상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 글이다. 이들의 서적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치유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이의 무리한 적용이다. 그러다 보니 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일체의 의료 행위를 금지시키기도 한다. 또한 이들의 믿음지상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론적인 문제점은 치유가 무엇이나는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치유 현상에 대한 변증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치유를 왜, 그리고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느냐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유 행위(병 낫는 것)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치유에 대한 이들의 관점은 여전히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이들에 의해 은사 치유 사역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에서 치유를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물론 이들도 치유를 정의함에 있어서 전인적 치유를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치유는 여전히 병 낫는 것이라는 것에 매달려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치유의 원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가 왜 고쳤는가를 알면 치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에

대한 정의는 치유 현상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예수에게서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성서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

필자는 시골의 한적함과 넉넉함에 취하여 살다 치유에 대해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1998년에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원에 들어갔다. 과정을 마치고 치유에 대한 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중 문득 “예수께서 왜 병자들을 고치셨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하였다. 예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는가? 그의 치유 사역은 무엇을 위함인가? 복음서들은 전체 기사 중 1/5 정도를 할애하여 예수의 치유를 비중 있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이 학위 논문의 출발점이 되었다.

거듭되는 고민 속에 복음서가 이적을 위한 책도, 의학용 서적도 아니므로 치유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복음서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인데, 복음서는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고,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와 그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쓰였다. 복음은 곧 구원의 소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다(막 1:14-15). 따라서 치유를 단지 병 낫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히포크라테스나 명의 화타로 보게 되는 오해가 생긴다. 예수의 전체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며, 치유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 부분이며, 동시에 모든 사역을 말한다. 예수의 치유 사역을 통해 볼 때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치료를 통해 병자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치유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치유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보자. 치유란 일반적으로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관계의 회복 등으로 정의된다. 즉, 한 인간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질병 또는 불완전한 상태가 전인적(wholistic)으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한 인간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자연 환경과의 관계, 더 나아가 지역 간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 등이 서로 충돌됨이 없이 성숙한 관계를 유지 또는 회복되는 것을 치유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치유는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이차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치유가 이미 깨어진 상태, 불완전한 상태, 미성숙된 상태, 또는 관계를 다시 회복 또는 성숙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미 깨어진 상태, 불완전한 상태, 미성숙된 상태, 또는 관계를 포괄적으로 질병이라고 한다면 질병을 전인적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치유라고 말할 수 있으며, 회복되어 온전한 상태, 또는 성숙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서는 인간을 '육체를 가진 혼'(incarnated soul)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몸'(animated body)으로 파악한다. 인간이 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로 몸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구약성서 기자들은 물리적 용어로 건강을 묘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을 별개의 부분들(몸, 혼, 영 등)로 나누지 않는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항상 전체로 다루었으며, 전체적인 면에서 건강을 이해했다.

하퍼(Michael Harper)는 건강이란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로 평화(shalom)를 말한다. 샬롬은 전쟁, 압박, 그리고 긴장이 없는 그 이상의 상태, 즉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구약성서에는 샬롬이란 말이 약 250회 나타나는데 그 사용된 의미는 완전함, 건강, 행복, 번영, 안녕 등으로 다양하며,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개인적 또는 국가적,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개별적 또는 공동체적 영역)에서 언급된다. 메시아의 궁극적 통치도 샬롬이다. 이 샬롬의 본질적 요소로 성서는 '의'를 말한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건강과 의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건강은 윤리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참고 : 출 15:26, 레 26:14-16, 잠 3:7-8)

신약은 건강에 대하여 구약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약의 살롬의 개념에다가 구원의 개념을 추가한다. 신약 성서는 예수가 행한 다양한 질병의 치유들을 묘사하는데 '구원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즉 치유와 구원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에 있어서 건강이란 구원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건강과 질병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 영적 차원 등 인간의 삶에 관한 총체적 개념이다. 성서에서의 건강은 살롬과 구원이라는 말로 요약되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 삶에 관한 총체적으로(위의 논의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온전함이 깨어진 상태,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질병(또는 상태)이 회복되어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건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치유를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로 정의와 평화의 차원이다. 전쟁과 가난, 억압과 착취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예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광명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묶인 자에게 해방을 선포한 이사야의 예언(사 61:1,2, 눅4:21)을 인용함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의 사역은 이러한 예언의 구체적인 실현이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따라서 예수가 선포하고 실현한 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이다. 그를 위해 가난한 자들의 투쟁에 동참하는 것, 반전, 평화 운동에 협력하는 것, 정치,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억눌린 자들을 위해 투쟁하는 것, 이 세상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자들이 없지도록 일하는 것, 그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등 모두가 치유 사역인 것이다.

둘째로 창조 질서 보전의 차원이다. 이는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환경 오염, 먹거리 오염 등 산업화, 현대화 등이 질병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운동, 자연 생태계 보전 운동, 공해 시설 퇴

치 운동, 반핵 운동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전하는 것이 치유이다.

셋째로 영적인 차원이다. 현재 기독교의 치유라고 불려지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 영적 차원의 치유이다. 상한 감정, 분노, 죄의식, 낮은 자존감, 우월주의 등 정서적이고 영적인 질병들은 인간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치유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를 단순히 개인적 질병의 차원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치유는 살롬이 이루어지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며,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구원 사역인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차원의 치유를 종합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부연하자면 치유는 '정의와 평화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 '영적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치유 받은) 하나님의 자녀(상처 입은 치유자)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도록 일해야 하는 사명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치유는 종말론적 윤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로 오시는 나라이다. 우리의 죄된 상태, 부조화와 미성숙 속에서 고통 당하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이다.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치유를 정의해 보았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은사 치유 사역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치유의 은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치유와 믿음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치유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사랑과 치유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치유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귀신들림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치유할 것인가, 치유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시를 결론으로 대신한다(계속).

무 애(無碍)

작은 바람에
앞산이
찢기고 흩어지고
.....
.....

호수에 앞산이
도장 찍히듯
들어앉아 있다
.....
.....

앞산에 올라
호수를
바라보니

산은 온데 간데 없고
하늘만
어른어른
.....
.....

가슴 열고
산 위에 누우니
하늘이로세